
한-EU FTA 협상동향

2009. 3. 30

외 교 통 상 부

목 차

I. 협상 현황 및 추진 일정	1
II. 주요 분야별 협상 동향 [잠정]	1
<상품 양허>	1
<자동차 비관세>	3
<원산지>	3
<관세환급>	4
<서비스>	4
<지리적 표시>	4
[참고1] 한-EU FTA 협상 추진 경과	5
[참고2] 한-EU 교역 및 투자 통계	6
[참고3] 한-EU FTA 협상 타결시 기대효과	7

1. 협상 현황 및 추진 일정

- 3.23~24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협상단 차원의 잠정적 합의를 도출
 - 다만,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미합의
 - 양측은 통상장관 회담(4.2, 런던)을 개최, 8차 협상결과 및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협상 최종 타결을 추진 예정임.
 - * '07.5.6 협상 출범 이래 8차례 공식 협상 및 고위급 협의(통상장관회담 8회 및 수석대표 협의 13차례)
- 협상이 타결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법률 검토를 완료하여 5월 말 협정문 가서명을 추진하고, 가서명 후 협정문 번역작업(EU 측은 23개국 언어로 번역)이 완료되는 대로 정식서명 추진

2. 주요 분야별 협상 동향 [잠정]

< 상품 양허 >

- EU의 경우 공산품 전품목에 대하여 5년내 관세를 철폐
 - * 품목수 기준, 약99%에 대한 관세가 3년내에 철폐 (한-미 FTA의 경우 91.4%)
 - 우리측은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EU측이 다소 조기에 관세를 철폐 하도록 비대칭적인 관세철폐 방식을 확보

<공산품 관세 철폐>

양허 단계	한-EU FTA				한-미 FTA			
	한국 양허		EU 양허		한국 양허		미국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비중
즉시철폐 (A)	91%수준	70%수준	97%수준	76%수준	89.9%	81.0%	87.3%	85.5%
3년철폐 (B)	5%수준	22%수준	2%수준	17%수준	6.3%	13.2%	4.1%	6.9%
조기철폐 (A+B)	96%수준	92%수준	99%수준	93%수준	96.2%	94.3%	91.4%	92.4%
5년철폐	3.5%수준	7%수준	1%수준	7%수준	1.9%	1.5%	4.0%	3.4%
7년철폐	0.5%수준	1%수준	-	-	-	4.2%	-	-
10년철폐	-	-	-	-	1.9%	-	4.6%	4.2%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

() : 관세율

	우리측	EU측
즉시	자동차부품(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복사기(8), 서류절단기(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평판디스플레이어(3.7), 편직물(8), 복사기(3), 서류절단기(2.2), 냉장고(1.9), 에어컨(2.7), VCR(14)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의약품(6.5), 화장품(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전자레인지(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칼라TV(14), TV카메라및수상기(14),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등
7년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건설중장비(8), 기타기계류(16), 밸브(8), 베어링(8) 등	미사용

○ 우리측 최대 관심품목인 자동차(08년 52억불 수출, 대EU 공산품 수출 중 18.5% 차지) 관세 관련, 양측 모두 중형/대형(배기량 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후 3년내,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은 5년내에 관세를 철폐

- EU의 중형/대형 승용차 관세 10%를 3년내 철폐시 매년 3.3% 관세인하 효과(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2.5%임을 감안시 이는 한-미 FTA에서의 즉시철폐 이상의 효과)

* 한-미 FTA의 경우,

(우리측)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즉시 철폐

(미국측) 3,000cc 이하 승용차는 즉시철폐, 3,000cc 초과 대형승용차는 3년내 철폐

□ 농산물 양허협상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 EU측은 특히 상업적 이익이 있는 관심품목에 대해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강하게 요구

○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는데 주력

- 특히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돼지고기삼겹살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한-미 FTA 결과(2014년 철폐)보다 장기로 추진

* EU산 냉동삼겹살 수입('08): 2.8억불(EU산 돼지고기 전체 수입액 : 4억불)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분리 등 예외적 취급 확보

○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 비관세 >

-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관련, 각 당사자의 국내기준과 유사한 UN유럽경제위원회(UN/ECE)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배출가스 기준은 09.1월부터 시행중인 FAS*(Fleet Average System: 평균배출량제도)를 적용하되 한-미 FTA 합의 내용과 같이 소규모 제작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

* FAS(Fleet Average System): 제작자가 다양한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동 제작자가 판매하는 모든 차종의 평균배출량이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휘발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유럽산 OBD(EOBD-6)를 인정하고 2014년전까지는 일정 대수까지만 유럽산 OBD를 허용

< 원산지 >

-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서 우리 산업 구조의 특성(역외 부품 및 재료의 높은 사용 비율)을 반영한 적정 수준(역외산 부품 사용 비율 45~50%)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채택 추진

* EU는 한-EU FTA 협상에서 처음으로 기존원칙 수정

- 엄격한 결합기준(HS 4단위 품목번호 변경 + 역외산 재료비율) 대신 보다 완화된 선택기준(품목번호 변경 또는 역외산 재료비율)도 수용

< 관세환급 >

우리측은 역외산 재료에 대해 관세환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EU측 요구가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관세감축 효과를 크게 축소시킴을 지적하고,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 EU측은 FTA 특혜관세와 함께 관세환급까지 허용할 경우 이중의 혜택이며 제3국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 EU의 경우, 멕시코, 칠레 등 기존 FTA에서 관세환급 금지를 규정

< 서비스 >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 및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리서비스)는 한-미 FTA보다 추가된 수준으로 개방

- 단, 유예기간(환경: 5년, 통신: 2년)을 부여하고, 생활하수처리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 권한 유보

법률서비스 관련, 외국법자문사의 home title(자국 명칭) 사용 허용

< 지리적 표시 >

양측은 지리적표시(농식품 및 포도주·증류주) 품목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여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

- 농식품의 지리적표시의 보호수준을 WTO협정상의 포도주·증류주 보호 수준으로 강화

선행상표의 사용은 계속 보장

참고 1

한-EU FTA 협상 추진 경과

-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EU FTA를 준비
 - 2003.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한-EU FTA를 지속적으로 검토
 - 2006.7월, 9월 EU측과의 두 차례 예비협의 개최

- EU와의 FTA 추진을 위해 국내 준비작업도 병행
 - 2005.3월 KIEP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비롯, 한-EU FTA의 영향 및 협상방향에 대해 다수의 연구용역 수행
 - 2006.9.27 및 12.18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추진계획 보고
 - 2006.11.24 한-EU FTA 공청회 및 12.6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업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 2007.5.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출범 결정

- '07. 5. 6 협상 출범 이래, 현재 제8차 협상까지 개최
 - * 1차('07.5.7-11, 서울), 2차('07.7.16-20, 브뤼셀), 3차('07.9.17-21, 브뤼셀), 4차('07.10.15-19, 서울), 5차('07.11.19-23, 브뤼셀), 6차('08.1.28-2.1, 서울) 7차('08.5.12-15, 브뤼셀), 8차('09.3.23-24, 서울)
 - 공식협상에 추가하여 2차례 확대수석대표회의(1차: 08.8.27-29, 서울, 2차: 08.12.15-18, 비엔나) 및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과별 회의 수시 개최

참고 2

한-EU 교역 및 투자 통계

□ 주요국과의 교역현황 (2008년, 우리측 관세청 통관기준)

(단위 : 억불)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전체)	8,573 (100.0%)	4,220	4,353	-133
중국	1,683 (19.6%)	914	769	145
EU	984 (11.5%)	584	400	184
미국	847 (9.9%)	464	384	80
일본	892 (10.4%)	283	610	-327

□ 한·EU 산업별 교역현황 (2008년, 우리측 관세청 통관기준)

(단위 : 억불)

구분	합계	공산품	농축임산물	수산물
수출	584	582	0.8	1.0
수입	400	379	19.6	0.9
수지	183.9	202.7	-18.8	0.1

□ 한-EU 10대 교역품목 현황 (2008년, MTI 4단위)

수출품목(관세율)	금액(억불)	비중	수입품목 (관세율)	금액(억불)	비중
선박(0~2.7%)	100	17.2%	의약품(8%)	16	4.0%
무선전화기(0%)	75	12.8%	반도체제조용장비 (0%)	16	3.9%
승용차(10%)	52	8.9%	자동차부품 (8%)	15	3.9%
평판디스플레이(3.7%)	39	6.7%	승용차 (8%)	15	3.9%
자동차부품(1.7~4.5%)	24	4.1%	기타정밀화학원료(6.5%)	12	3.1%
집적회로반도체(0%)	19	3.3%	집적회로반도체(0%)	12	3.0%
제트유및등유(3.5~4.7%)	16	2.7%	기타화학공업제품(6.5%)	10	2.4%
경유(3.5~3.7%)	16	2.7%	원동기(8%)	9	2.4%
칼라TV(14%)	14	2.5%	펌프(8%)	9	2.1%
광학기기부품(2.9~6.7%)	14	2.3%	기타기계류(8%)	8	2.0%
소계	369	63.3%	소계	123	30.7%
전체	584	100.0%	전체	400	100.0%

□ EU의 대한민국 투자현황 (제1위 투자국)

(단위 : 억불)

연도	'03	'04	'05	'06	'07	누계('62-'07)
EU의 투자액	30.6	30.1	47.8	49.8	43.3	448.2
미국의 투자액	12.4	47.2	26.9	17.1	23.4	390.0
일본의 투자액	5.4	22.6	18.8	21.1	9.9	205.3
중국의 투자액	0.5	11.7	0.7	0.4	3.9	21.8

참고 3

한-EU FTA 협상 타결시 기대효과

1. 한-미 FTA 이상의 경제적 효과 발생

□ EU는 세계 제1위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임.

- * EU의 GDP(2007년)는 16조 9천억불로 미국(13조 8천억불)을 능가
- * 우리의 對EU 총교역은 928억불, 수출은 560억불로 각각 미국(총교역 830억불, 수출 458억불)보다 크며, 對EU 무역수지 흑자는 192억불 규모로 對美흑자(85억불)의 2배 수준으로, 對중국 흑자(190억불)을 추월해 EU가 우리나라의 최대 흑자국으로 부상

□ EU(4.2%)는 미국(3.6%)보다 평균관세율이 높고,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국내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이익 증대

□ 국내 소비자들도 세계적인 품질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EU산 제품을 보다 싸게 소비할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는 EU로부터의 수입 증대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음.

3. 외국인 투자 촉진

□ 한-EU FTA는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와 EU 및 제3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제고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

4.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 EU와의 FTA는 우리나라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가속화시켜, 우리 경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5. 「동아시아 FTA 허브」 로의 부상의 계기 마련

□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 - 동아시아 -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